

# SK하이닉스 ‘청년 실업·中 소 구인난 해소’ 팔 걸었다

청년 희망나눔 프로그램 실시  
200명 청년 인재 육성·지원  
인턴십 거쳐 취업기회 제공

SK하이닉스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희망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희망나눔은 직무교육 및 인턴십 제공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34세 이하 청년과, 인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SK하이닉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SK하이닉스의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인재는 SK하



16일 열린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 설명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하이닉스

이닉스에서 실시하는 6주간의 직무교육과 채용기업에서 진행되는 3개월간의 인

턴십을 거쳐게 된다.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마치고 취업의지와 실력이 증명되면 S

K하이닉스 1, 2차 협력사 취업 기회가 제공된다. SK하이닉스는 교육과 인턴기간 중 지급되는 교육훈련비(1인당 100만원)와 인턴급여(1인당 월 180만원)를 부담한다. 정규직으로 최종 취업된 인원이 1년 근무하는 경우 근속 축하금(1인당 300만원)도 지원한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에는 SK하이닉스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올 상반기부터 시범 적용 중인 AI 자기소개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직무교육은 인턴 직무에 맞춰 반도체와 경영일반 2개의 과정으로 각각 운영된다.

반도체 과정은 SK하이닉스 대학(SK HU) 전임강사가 반도체 현장의 실질적인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

턴십 동안 협력사의 효과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개인별 행동유형 및 성향 분석 결과가 포함된 종합 육성 가이드를 협력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사전 니즈 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37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16일 이전 본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SK하이닉스 지속경영 담당 신승국 전무는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것도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해야 할 책무”라며 “SK하이닉스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우수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삼성 갤럭시노트9, 中 소비자에 구애

31일 첫 선... 신뢰 회복에 노력  
위챗과 협력해 사용자 기능 강화

삼성전자가 15일 중국 상하이 1862극장에서 현지 미디어, 갤럭시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갤럭시 노트9’의 중국 출시를 발표했다.

이 날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제품 디자인부터 판매, 마케팅까지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듣고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9 중국 출시에 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위챗과 협력해 다양한 위챗 기능을 사용자들이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현지 40여개의 인기 게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성능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고사



지난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갤럭시 노트9’ 출시 행사에서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이 ‘갤럭시 노트9’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양 게임도 장시간 성능 저하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갤럭시 노트9은 중국에서 8월 31일부터 미드나잇 블랙과 오션 블루, 메탈릭 쿼퍼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조현준의 투명경영... 효성 분할4사, 시장과 소통 강화

분할 사업회사 ‘코퍼레이트 데이’  
사별 설명회·기관투자자 만남 가져

효성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처음으로 공동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각 사업회사를 중심으로 시장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효성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효성 분할 사업회사들이 16~17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독립경영체제 구축 후 처음으로 공동기업설명회인 ‘코퍼레이트 데이(Corporate Day)’를 개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코퍼레이트 데이는 조현준 회장이 지난 해 취임한 이후 투명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확대해 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효성은 이번 코퍼레이트 데이 행사에 국내 110여곳의 기관투자자를 초청했다. 효성은 각 분할 회사별로 설명회 부스를 마련하고 1시간씩 순차



효성이 분할 이후 처음으로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대표이사과 재무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16~17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에서 공동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효성

적으로 기관투자자들과 만났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 효성의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 등 향후 주요 사업 계획을 밝혔다.

우선 효성티앤씨는 2019년까지 인도에 스파텍스 공장을 건립해 시장점유율을 70%까지 늘리는 등 인도 내수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1위의 ESS(에너지 저장 장치) 업체로, 전력 계통 운

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코드사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등 신시장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효성화학은 베트남 남부 바리우붕다우성에 폴리프로필렌(PP) 공장 건립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약 12억달러 규모의 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 생산 공정 및 기반 시설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유진 기자

## ‘제네시스’ 세계적 디자인 경쟁력 입증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서 7개 상 수상

현대자동차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세계적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7개의 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20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4개를 수상했으며 제네시스 브랜드는 2개의 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는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4개를 수상했다. 수상 제품과 분야는 ▲미니버스 ‘솔라티’ 무빙호텔(최우수상, 사운드 디자인 분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소전기에너지 체험관 파빌리온(본상 2개, 브랜드 경험 설치물 및 사운드 디자인 분야) ▲파이어나어스 필름(본상, 필름&애니메이션 분야) ▲세이프티 홀로그램(본상,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야)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솔라티 무빙호텔은 자동차의 역할을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로 개발된 맞춤형 차량으로, 가수·배우 등 연예인에게 최적화된 공간으로 디자인됐다. 솔라티 리무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솔라티 무빙호텔은 S



현대차 솔라티 무빙호텔.

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진행한 ‘현대 X SM 무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공개됐다.

또 현대차 파빌리온은 수소전기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감각적 디자인과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제시해 평창올림픽 때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프랑스 칸 국제광고제에서 디자인 카테고리 본상(동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자사 브랜드의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독립형 전시관인 ‘제네시스 강남’과 이 브랜드의 독자적인 음향 체계인 ‘제네시스 사운드’가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리테일 디자인과 사운드 디자인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탔다. /양성운 기자 ysw@

## SKT, 전국 기지국으로 지진감지 ‘촘촘하게’

기상청과 지진관측 MOU 체결  
감지 센서 설치해 데이터 수집

전국 방방곡곡에 구축된 SK텔레콤 기지국이 보다 촘촘하게 지진을 감지한다.

SK텔레콤은 기상청과 지진 관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진 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전국에 위치한 기지국사 중 8000곳에 지진 감지 센서를 설치한다. 기지국사에서 제공되는 지진 관련 정보는 기상청이 보유한 지진 관측소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함께 보다 정밀한 지진 관측을 위해 사용된다.

SK텔레콤은 내달부터 포항·울산·경주 등 지진 다발 지역 300개 기지국사에 센서를 우선 설치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전국 80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크기의 지진 감지 센서는 ▲지진과 강도 ▲중력 크기 ▲진동 세기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계다.



기상청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왼쪽)과 남재철 기상청장이 참석해 양사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지진 관측 정보를 기상청에 공유하면, 기상청은 해당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진을 감지할 계획이다.

기지국사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온도 및 습도 유지 ▲외부인 출입 제한 ▲24시간 전원 연결 등이 요구된다. 기지국사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지진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정보 신뢰도를 보장하는 최적의 장소다.

기상청의 ‘2017 지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223회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포항에서 규모 5.4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단위의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전국 8000개 기지국사에서 수집된 다량의 지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지진 관련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지진 조기경보단축기술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과 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산업 현장의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상청의 지진 통보 시스템과 대규모 제조 공장·건설 현장을 사물인터넷(IoT) 망으로 연결해 대규모 지진 감지 시 조기 경보를 통해 인력 대피 ‘골든 시간’을 확보하고 공장 가동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식이다. /김나민 기자 silkni@